

2018 하계 이화봉사단 국내교육봉사

충청남도 논산시
- 희망지역아동센터



2018. 8

안*연

실제로 봉사를 하기 전 팀원들과 만나서 회의하고 시연한 게 정말 재미있었다. 내가 보기에든 재밌어보이는 활동이 많아서 가기 전부터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지만 기대되는 마음도 컸다. 그런데 첫날엔 아침부터 일이 꼬이고 꼬여서 걱정이 정말 많았는데 학생들을 점점 알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쉽게 통제할 수 있는지 비법을 터득했다. 거의 일주일가량 함께했던 팀원들과 사이가 매우 좋아서 힘들지만 잘 버텨낼 수 있었다.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건 다 팀원들 덕분이었다! 이화봉사단을 계기로 좋은 추억도 쌓고, 또 좋은 인연을 만들어서 정말 기쁘다.

“항상 선생님들이 다음에 또 오겠다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다시 안 왔어요.”

2016년 겨울, 처음 아이들과 헤어지던 날 한 아이에게서 들은 말입니다. 이짧은 말 한마디가 저로 하여금 4번이나 희망지역아동센터로 이끌었습니다. 아이들이 더 이상 이화봉사단 선생님들을 한번 보고 말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했습니다. 그래서 눈에 밝히는 아이들을 보기 위해 방학마다 가게 되었습니다. 4학년이던 말 썩쟁이들이 어느새 6학년 형누나가 되어 아이들을 챙기고 있고, 꼬꼬마 1학년은 어느새 3학년이 되어 있었습니다. 아이들이 자란 만큼 저 또한 선배언니들을 졸졸 따라왔던 2학년이었는데, 어느새 4학년 막 학기를 앞두고 되었습니다. 이화봉사단으로 활동한 시간 속에서 저는 아이들에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고, 그 사랑들 속에서 저는 한층 성장해 이었습니다.

아이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.. 더 이상 아이들을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미어졌지만, 헤어짐이 아닌 잠시 안녕이라고 생각하려 합니다.

이화봉사단으로 활동하게 된 게 처음이라 설렘보다는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았다. 내가 이 프로그램을 준비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은 어떨지, 아이들이 5일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와 줄지, 아이들끼리 다투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등에 대한 걱정과 고민들이었다. 하지만 5일간의 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를 탔을 때는, 걱정했던 만큼이나 내가 배우고 받은 게 많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. 고민했던 상황들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, 나보다 경험이 많은 팀원 언니들이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배웠고, 매일 저녁 숙소에서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다른 팀원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를 서로 논의하면서 매일 매일 더 발전하는 모습이 만들어진 것 같다. 생각보다 어른같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더 순수했던 아이들을 보면서 힐링을 받았고, 마지막 날 아이들이 직접 적어준 편지와 상장, 여러 가지 선물들을 보면서 과분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음을 느꼈다. 다음 번에도 같은 지역센터에서 봉사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.

서*민

이번에는 진정한 봉사활동을 실현한 것 같아 뿌듯하다. 그동안은 형식적으로만 봉사를 해왔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준비를 하고 또 오랜 기간 일을 하면서 봉사활동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. 준비 기간 동안 부담감을 느끼기도 했고 과연 내가 이 활동을 결심한 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한 회의감도 있었지만 아이들과 지내면서 내 결정에 후회가 없었다. 아이들 각자의 성격, 배경, 표현방식은 비록 모두 달랐지만 5일 후에는 아이들 각각의 상황이 이해가고 결국 아이들은 모두 순수했고 관심 받기를 좋아했으며 정이 많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다. 봉사활동을 하면 내가 주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여러 영향들을 받았다. 방학동안 거기서 보낸 5일은 잊지 못할 추억들을 만들어 줬고 또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었다. 이화봉사단에 도전하기를 망설이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도전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.

이번 봉사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을 통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정말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. 봉사활동을 실행하면서 예상치 못해서 당황스러웠던 상황도 있었고 아이들이 생각보다 더 잘 따라와서 고마웠기도 했습니다. 친구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갔을 때 아이들도 같이 호응해줘서 뿌듯하기도 했습니다. 처음에는 단지 아이들과 놀고 같이 공부하는 재미있게 지내다 와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봉사를 가보니 고민할 것이 더 많았습니다. 학생신분이 아닌 선생님의 신분으로 아이들을 만났기 때문에 더 조심했고 선생님다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. 그래도 내 행동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기회였고 평소 내가 하는 말들의 문제점을 깨닫게도 해줬습니다.

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예상되었던 문제점들이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이었고 이번 프로그램을 꼼꼼하게 계획을 한 것을 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. 무엇보다 하루가 마무리되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저녁시간에 팀원들이 같이 다음날 프로그램에 대해 고민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생각해보고 준비도 같이 한 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. 제가 못하는 일들을 언니들과 선경이가 같이 해주고 같이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. 무엇보다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했던 시간이 제일 재미있었고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. 그 얘기만 거의 3시간이 다 되도록 얘기할 정도로 너무 재미있었고 아이들과 있었던 얘기를 얘기하며 행복했습니다.

팀원모두가 11시만 되면 잘 정도로 정말 피곤했고 힘들었지만 우리가 열심히 계획한 것을 잘 따라준 아이들과 제가 필요한 것을 잘 챙겨준 언니들과 선경이 덕분에 너무 고맙고 행복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.

정*영

솔직히 봉사기간 동안 즐겁지만은 않았다. 무더운 날씨와 일부 말 안듣는 아이들, 크고 작은 사건들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스트레스가 상당했기 때문이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보고 느낀것이 많았고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날 수 있었어서 정말 소중한 경험으로 남게 되었다. 우선 다른 과, 다른 학년 등 너무나도 다른 배경을 갖고있는 사람들이 모여 한 팀이 되었음에도 같은 목표를 위해 마음을 합하고 서로 배려할 줄 아는 팀원들을 만난 것이 정말 감사했다.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선하고 재능이 많아서 같이 활동하는 동안 많이 배울 수 있었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었다. 그리고 센터 아이들과 함께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다. 매 수업마다 선생님들한테 사탕을 주는 아이, 그림 그린 거나 직접 만든 것들을 선물로 주는 아이들도 있었다. 우리와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아이들 덕분에 현실에 치여 삭막하기만 했던 삶 속에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었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다. 아이들에게 내가 준 것 보다 받은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더 잘 해줄걸 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. 힘들었던 기억들이 추억으로 기억될 만큼 얻어가는 것이 많았던 4박5일이었다.